



최선아, <Cypress(사이프레스)> 2022, 편백나무에 오일바, 7.6x40x3.8cm

Young ISU

이수그룹 공채 35기 신입사원

이수인의 반력생활

이수펫갤러리

이수더지니어스

나도 혹시 천재일까? 뇌섹 이수인 소환!

이수 튜브

호모 하빌리스 - 목공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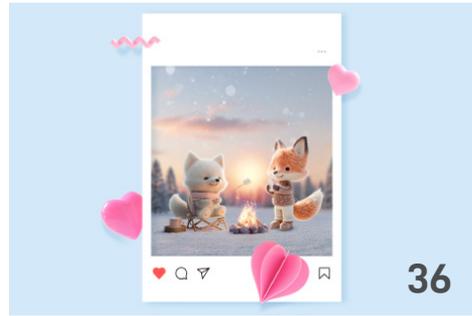
이수 테이블

쫘득 탕글 구이로, 야들 말강 전골로 - 소곱창

ISU PLACE

세 작가를 소개하는 전시 <VHS(Very High Signals)>

CONTENTS



COVER STORY

일상의 감각과 사고의 관습을 새롭게 사유하는 순간을 드러내는 세 작가를 소개하는 <VHS(VerY High Signals)>전이 2026년 1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스페이스 이수에서 개최된다.



06 신년사

08 Focus & News

18 Young ISU

공채 35기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26 그룹 출범 30주년 특별 참여 프로젝트

- ① Back to 1996
- ② 나는 Collector

30 이수인의 반려생활, 이수펫갤러리

강이원 책임(이수페타시스 재경팀)

32 이수 플레이리스트

멀리 가는 향기, 인생 음악 공유해요!
양두열 선임(이수스페셜티케미컬 공무파트)
김미강 선임(이수페타시스 구매팀)
박보경 선임(이수페타시스 품질보증2팀)

36 이수타그램

사진과 해시태그에 담긴 아름다운 추억들
권지용 과장(이수건설 경영기획팀)
곽은지 대리(이수앱지스 연구지원파트)
하홍준 선임(이수시스템 ERP팀)

40 지금 이 순간, OTT

일상의 활력, 공감 콘텐츠 추천
강창민 선임(이수페타시스 구매팀)
김신원 선임(이수화학 인사노무팀)

44 이수더지니어스

나도 혹시 천재일까? 뇌섹 이수인 소환!

48 이수튜브

머리만 쓰는 그대, 이젠 손도...
호모 하빌리스(Homo Habilis)
- 목공의 세계

54 이수 테이블

스토리셰프가 차려내는 식탁
쫄득 탕글 구이로, 아들 말장 전골로
- 소곱창

66 ISU PLACE

일상의 감각과 사고의 관습을 새롭게 사유하는 순간
VHS(VerY High Signals)

70 이수 간식 창고

간식 서프라이즈 - 우리 팀에게 쓰세요!

73 컬러링 테라피 갤러리

컬러링 응모작 소개

74 컬러링 테라피 및 엽서

본지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자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수그룹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해당 필자들의 견해이며, 이수그룹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수그룹 계간 사보 2026년 신년호 통권 123호

발행일 2026년 1월 16일
발행인 김상범
발행처 ㈜이수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총괄진행 김현중 02-590-6819
사보기자 이수화학(김신원-안민찬) 이수스페셜티케미컬(신선아-이하연) 이수페타시스(백동휘-한수진) 이수건설(강나영) 이수시스템(서준혁) 이수창업투자(김경문) 이수앱지스(양예슬) 이수AMC(이홍휘)
제작디자인 LEE & LEE work shop 기획실장 이신우, 디자이너 유선영
인 쇄 LEE & LEE work shop

※이수그룹 사보는 친환경 FSC인증 펄프로 만든 용지를 사용해 제작합니다.

FSC인증은 국제산림관리협회가 만든 친환경 인증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종이와 상품에 부여됩니다.

다시 설계하는 30년,
실행으로 여는 2026

지난 30년의 축적 위에서
이수는 이제 더 빠르고 단단한 실행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올해는 우리 이수그룹 출범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며 우리만의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보여주신 여러분의 헌신과 책임감은 오늘의 이수를 만든 결정적인 힘이며, 미래를 열어갈 가장 든든한 기반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특히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미래형 전고체 전지의 원료인 Li₂S 상업생산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고, 이수페타시스는 AI 산업의 글로벌 수요에 대응한 생산력 확대를 통해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의 기술력과 준비된 포트폴리오가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룹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넘어서는 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향후 추진해야 할 변화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결과이며,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연장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AI와 데이터 기술이 산업 구조를 빠르게 뒤바꾸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경쟁은 더욱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이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반을 다시 설계한다는 각오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의 성장은 미래지향적 기술이 견인할 것입니다.

AI와 데이터 기반의 공정 혁신, 소재 기술의 고도화는 단순한 경쟁력 강화의 도구를 넘어 기업가치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은 우리 그룹이 시장에서 어떤 기업으로 평가받을지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미래가 유망한 차세대 전지소재, AI 관련 데이터 처리 가속화 관련 기술, 바이오 항체플랫폼 기술은 **그룹의 핵심적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회사 간 경계를 넘는 협업을 통해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기술 강화에 힘써 주십시오. 화학·소재·IT·제조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외부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기술 기반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각 사가 가진 경험과 성과가 그룹 전체와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활용될 때 이수그룹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 된 생태계로 거듭날 것입니다.

2026년의 이수는 빠른 실행을 중심에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빠른 실행으로 앞서가야 합니다. 다만 빠르다는 것이 성급한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한, 빠른 실행력으로 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준비는 철저히, 실행은 과감하게 나아갑시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지난 실패를 거울로 삼는 자세로 앞서가야 합니다. 작은 성과가 쌓이고, 그 성과가 개인과 조직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완성될 때 우리는 더욱 강한 회사가 될 것입니다.

이수가족 여러분,

지난 30년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30년은 그 힘을 기반으로 더 큰 도약을 만들어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술 중심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며, 실행력 있는 조직으로 변화해 나간다면 이수그룹은 어떤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2026년이 이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 1. 2.

이수그룹 회장 김상범



혁신가들의 등장 innovators show up CES 2026

피지컬 AI가 보여준 기술의 현재

이번 CES 2026은 ‘혁신가들의 등장(innovators show up)’을 주제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으며, 전 세계 160개국 4,3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기술 혁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했습니다.

전시는 단순한 신제품 공개를 넘어, 산업과 기술 진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다양한 솔루션과 논의를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AI가 로봇, 웨어러블, 의료기기 등 실체를 갖춘 하드웨어와 결합하며 일상과 산업 현장으로 확장되는 흐름이 주목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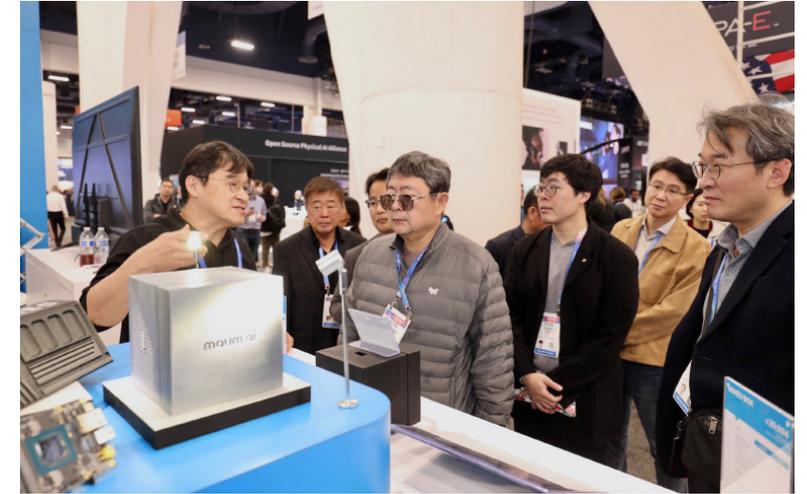
‘피지컬 AI’는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산업용 기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소개되며, 제조·물류·건설·가사 등 여러 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기술의 가능성과 함께 현실적인 과제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일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정밀도와 안정성, 속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반의 고도화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CES 2026은 AI와 로봇 기술이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분명히 드러낸 자리였습니다.

(출처: ces.tech /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CTA)®)



김상범 회장(앞줄 가운데), 이수스페셜티케미컬 김성민 부회장(왼쪽 두 번째), (주)이수 김세민 대표(오른쪽 세 번째), 이수화학 김동민 대표(오른쪽 두 번째), 이수페타시스 최창복 대표(오른쪽 첫 번째)

김상범 회장 경영 활동

김상범 회장 및 그룹사 사장단 CES 2026 참석, 글로벌 기술 변화 점검

이수그룹 김상범 회장은 2026년 1월 7일(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6에 참석했습니다. CES는 매년 전 세계 주요 기술 기업과 혁신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로, 2026년에도 AI를 비롯해 로봇, 에너지, 제조,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소개됐습니다. 특히 기술이 개념이나 시연 단계를 넘어 실제 산업과 비즈니스 환경에 적용되는 사례가 다수 제시되며, 기술 발전의 현실성과 한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전시로 평가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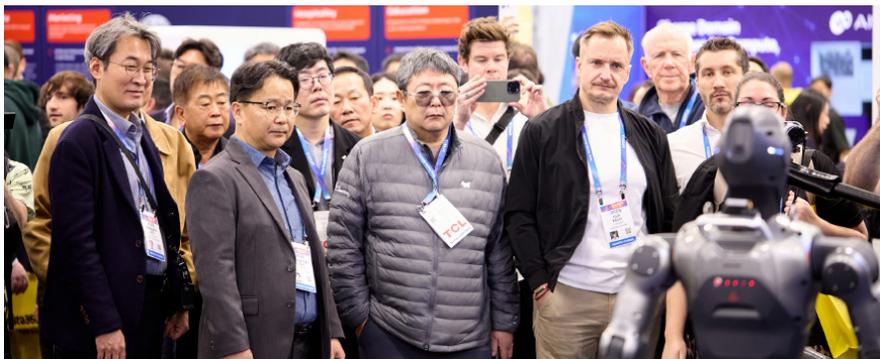
김상범 회장은 이수스페셜티케미컬 김성민 부회장, (주)이수 김세민 대표와 동행해 전시장을 둘러보며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최신 기술 흐름과 산업 전반의 변화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현장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전시를 참관하며 기술 발전이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폈으며, 기술이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내는 흐름과 함께, 각 기업이 자사의 경쟁력을 기술과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이수그룹은 이번 CES 참관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중장기적인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그룹 전반의 기술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기술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각 사업 부문에 적합한 기술 활용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상범 회장(앞줄 가운데), 이수스페셜티케미컬 김성민 부회장(오른쪽 첫 번째), 이수화학 김동민 대표(왼쪽 첫 번째)



김상범 회장(가운데), 이수스페셜티케미컬 김성민 부회장(오른쪽 두 번째), (주)이수 김세민 대표(오른쪽 첫 번째), 이수페타시스 최창복 대표(왼쪽 첫 번째)



김상범 회장(앞줄 가운데), 이수페타시스 최창복 대표(왼쪽 첫 번째)

(주)이수

류현진재단과 손잡고
전국 초·중·고 야구부에
훈련용품 지원



이수그룹과 류현진재단이 함께한
찾아가는 베이스볼 Dream
현장 스케치

이수화학

울산대학교 산학협력 연계
견학 프로그램 진행



이수그룹이 지난해 11월 19일 경기 시흥시 정왕 야구장에서 류현진재단과 함께 전국 초·중·고 야구부를 대상으로 야구 용품을 지원하는 '2025 찾아가는 베이스볼 Dream'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매월 1회 전국 초·중·고 야구부를 직접 찾아가 훈련 장비를 전달하고 현장에서 일일 코칭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정왕 야구장에는 (주)이수 김세민 대표와 류현진 이사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소재 중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에게 야구공 등 훈련용품을 전달하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수그룹은 메인 스폰서로서 진정성 있는 지원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수화학은 지난해 9월 22일 울산대학교 경영경제융합학부 마케팅전락론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울산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견학은 산업체 연계 실무형 프로젝트 수업(IF-PBL)의 일환으로, 이수화학 영업팀의 마케팅 과제를 학생들의 수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수행하는 과정 중 하나로 마련되었습니다. 울산공장을 방문한 학생들은 공정 및 설비 운영 방식, 안전 시스템 등을 살펴보고 산업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현업 담당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실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수화학은 앞으로도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며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

경영 현황 설명회 개최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지난해 10월 29일~30일 경영현황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행사는 류승호 대표가 직접 직원들에게 회사의 실적과 이슈들에 대해 설명하고 직원들과 대화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경영 성과와 각 사업부의 추진 과제, 향후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류승호 대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회사가 흔들림 없이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들을 강조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의 중장기 전략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AI 팩토리 얼라이언스 사업 선정



이수페타시스가 지난해 10월 산업통상부 주관 'AI 팩토리 얼라이언스'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AI 가속기 초고다층 PCB 제조 자율기술 개발' 과제명으로 선정된 해당 사업은 제조 현장에 AI를 접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이수페타시스는 PCB 분야에서 AI 기반 자율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AI 기반 제조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고성능 네트워크 및 AI 가속기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수건설

'부산 강동 A-2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종합심사 1순위 선정



이수건설은 지난해 11월 11일 조달청에서 발주한 '부산 강동 A-2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에서 종합심사 1순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 강동지구 내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 7개 동 333세대와 각종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연면적 약 1만 4천 평 규모입니다. 이수건설은 기술력, 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 평가하는 '종합심사 낙찰제'에서 최고점을 획득하며 1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수주를 통해 이수건설은 부산권 주택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및 브라운스톤 브랜드 확장을 기대하며, 향후 조달청 공공주택 사업에서도 입지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수시스템

한국기업보안과 인증서 자동화 관리 솔루션 총판 계약



이수시스템은 지난해 10월 한국기업보안과 인증서 자동화 관리 솔루션 UCLM(U-Certificate Lifecycle Management) 총판 계약을 맺었습니다. UCLM은 SSL 인증서 유효기간이 단축되어 갱신 의무 주기(최종 47일)가 짧아지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솔루션으로, 인증서의 발급·관리·자동 갱신·폐기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대표적인 인증서 생애 주기 관리(CLM) 솔루션입니다. 양사는 향후 국내 주요 CSP사와 협력해 UCLM을 마켓 플레이스에 등록하고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클라우드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수앱지스

AI 신약개발기업 갤럭스와 신약개발 협력 MOU 체결



이수앱지스는 지난해 11월 14일 AI 신약개발기업 갤럭스와 AI 기반 신약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수앱지스의 전주기 신약개발 역량과 갤

럭스의 AI 신약 설계 플랫폼을 결합해, 바이오신약 연구개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설계 기술과 실질적 개발·생산 역량을 융합해 단백질 신약개발의 생산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단기 협업에 그치지 않고, AI가 신약개발 전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적용 방향을 장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수앱지스 유준수 대표는 “이 협약의 체결로 인해 오랜 신약개발 경험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연구 노하우에 AI 기술을 결합해,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연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전통적 연구 기반 위에 첨단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신약개발의 속도와 방향성을 새롭게 정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스는 AI와 물리화학적 원리를 결합한 독자적 신약 설계 플랫폼 ‘갤럭스디자인 (GaluxDesign)’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특정 질한 타깃 단백질에 최적화된 서열과 구조를 드 노보(de novo,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최근 다수의 치료 타깃에서 높은 결합력을 가진 신규 항체 발굴 성과를 발표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신약 개발 방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갤럭스 창립자 석차욱 대표는 이 행사에서 “이수앱지스와의 협력을 통해 AI 단백질 설계 기술의 실질적 가치를 입증하고, 신약개발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수AMC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



이수AMC는 지난해 11월 22일 직원들과 들나무봉사단이 함께 성북동 북정마을에서 취약계층 및 홀로 어르신 가정에 2,5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연탄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200만 원도 전달했습니다. 이수AMC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수창업투자

이수-창인 방산투자조합 제1호 결성



이수창업투자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수-창인 방산투자조합 제1호’ 결성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민간출자로 총 70억 원 규모로 조성된 본 조합은 창인기술투자(유)와 공동으로 운영하며, AESA 레이더 핵심부품(TRM, APS 모듈 등)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래디오빌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펀드는 방산 및 첨단 전자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둡니다. 또한 유망 방산 부품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산업 생태계 발전과 안정적 투자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믿음이 가고,
가능성 앞에서 망설이지 않으며,
곁에 있을수록 더 따뜻해지는 변화”



ISU 이수그룹

이수그룹 조직문화, 그 변화 과정에 동참해 주세요

Q. 조직문화, 무엇인가요?

조직문화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자,
함께 공유하는 규칙입니다.
업무에 대한 태도, 의사결정의 기준, 동료와의 소통 방식 등이 모여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듭니다.

Q. 조직문화, 왜 변화되어야 하나요?

세상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과거의 성공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즐겁게 몰입하고,
변화 속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일 하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Q. 조직문화,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가 왜 필요한가요?

조직문화는 구성원 여러분의 의식과 행동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와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싶은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이어질 조직문화 변화에 함께해 주세요!

2026년 말띠 해,
이수그룹에서 새 출발을 하는

공채 35기 신입사원 27명을 소개합니다.

2026년 말의 해에 이수그룹의 새내기 가족을 맞이합니다.

말(馬)은 예로부터 긍정적인 상징성으로
인류와 함께 진화해 왔습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관철될 때까지 한눈 파는 일없이
계속 나아가 성공률이 높습니다.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고, 추진력과 모험심이 강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실 적응력이 뛰어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길러 오다가
이수그룹에 첫 발을 딛는 신입사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걸려온 글로벌 인재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수그룹에서 마음껏 펼치길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멋진 꿈을 향한 질주를 응원합니다.

(주)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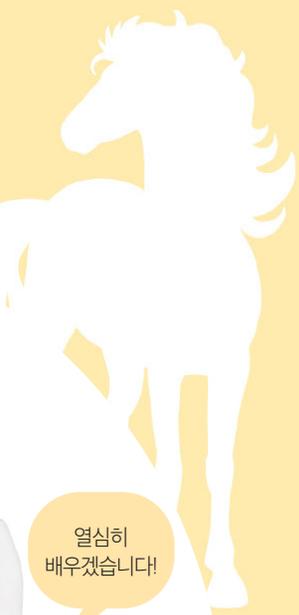


늘 새로운 기회에
대비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권지은 선임

이수화학



항상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으로 일신우일신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서민주 선임, 김재혁 선임, 문승연 선임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어떤 업무든 최적의 성과로! 우리 팀의 스페셜티가 되겠습니다!

황화리튬의 스페셜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질문은 많이, 직무 적응과 능력의 스페셜티를 키워가겠습니다!

스페셜한 열정을 가진 패기 넘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앞) 이재욱 선임 (뒤) 김효정 선임, 양은지 선임, 장서윤 선임

이수페타시스

적극적 소통이
협업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일 더 빛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후배가
되겠습니다!

열정과
실행력으로
신뢰받는
이수인이
되겠습니다!

원조할매순대국밥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식 100만을 향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환 선임, 최재웅 선임, 이동규 선임, 김성현 선임, 김시현 선임, 김동화 선임



초심을
잃지 않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성장해 가겠습니다!

'뭘든 할 수 이수!!!'의
마인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출근의 설렘,
마지막까지
가져가겠습니다!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사원이 되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세종 선임, 김희진 선임, 이주영 선임, 박민지 선임, 안재현 선임

이수페타시스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도전하며
성장하는
신입사원이 되어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되겠습니다!

혼자
잘하는 것보다
함께 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배움을 잃지 않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성장하는
이수페타시스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앞) 어영준 선임, 임재협 선임 (뒤) 김동훈 선임, 박결 선임, 권순우 선임

이수앱지스

밝은 에너지로
이수앱지스를
밝히겠습니다!

작은 성과도
소중히 여기며
꾸준히
도전하겠습니다!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기획자로서
선배님들 마음속에
'입주' 하겠습니다.



이다영 사원, 서주연 사원, 정유진 사원



Back to 1996

이수그룹 출범, 그 해 나는

이수그룹이 태어난 해,
당신은 어떤 하루를 살고 있었나요?

1996년의 당신을 들려주세요.

2026년, 이수그룹은 출범 3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 시작점이었던 1996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Back to 1996〉은

이수그룹이 첫 이름을 갖던 해를 배경으로,

임직원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그 시절의 장면과 감정을 함께 모아보는 회상 프로젝트입니다.

첫 직장을 준비하던 설렘
군 복무 중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한 곡의 음악
처음으로 폴더형 휴대폰을 손에 쥐었을 때의 뿌듯함
웨딩촬영을 준비하던 하루
처음으로 떠났던 첫 해외여행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던 해, 첫 학년의 기억
내가 태어나던 해의 기록

당신의 기억 속 '1996년의 나'를 기다립니다.

선정된 사연은 2026년 봄호(그룹 출범 30주년 기념 특집호)에 소개됩니다. (접수기간: 2월 28일까지)

제출 내용: 사진 1~3장 + 간단한 사연 (그 시절의 사진, 가족·군대·학교·여행 등 어떤 장면도 가능)

선정된 분께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 이메일 : sinew@isu.co.kr



나는 Collector

이수의 시간을 모아온 사람을 찾습니다.



사보가 있는 풍경
나의 시간과 함께 자라 온 이수의 기록

당신 곁에 남아 있는 사보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수그룹의 30년 발자취는
사보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과
변화해 온 현장, 그리고 그룹 성장의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Collector〉는
이 오랜 기록을 누구보다 애정으로 간직해 온 임직원을 찾는
그룹 출범 30주년 특별 프로젝트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이수의 시간을 지켜온 분들께 전하는
초대이자 감사의 마음입니다.

Oldest ISU 상

가장 오래된 사보 보유자

이수그룹의 시간을 누구보다
오래 함께 해온 임직원

ISU Archive Volume 상

최다 사보 보유자

가장 많은 수의
사보를 꾸준히 모아온 임직원

당신 곁에 남아 있는 '이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부문별 수상자는 2026년 봄호(그룹 출범 30주년 기념 특집호)에 소개됩니다. (접수기간: 2월 28일까지)
제출 내용 : 사보 인증 사진 2~3장 + 간단한 사연 (보유 중인 사보를 촬영한 사진, 발행 연도·호수 확인이 가능한 컷)
선정된 분께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 이메일 : sinew@isu.co.kr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소중한 순간

이수펫갤러리



서효원 작가, <금동이> oil on canvas, 20x20cm

우연처럼 만났지만, 같은 생일로 이어진 운명 같은 인연, 금동이는 제 일상을 함께 달리는 가장 소중한 가족입니다.



강이원 책임
(이수페타시스 재경팀)

금동이

이름: 금동이 (수컷)
별명: 금또속 (금동이 또 속았네~)
생년월일: 2018. 2. 20
취미/성격: 주인바라기 & 식탐대마왕



· 자랑거리

강아지 마라톤 5km 완주 경험이 있는 강아지입니다.
활동적인 성격이라 산책을 무척 좋아하고,
“금동아, 뛰자!” 그러면 우다다다~
썩살같이 달려 나갑니다.
산책을 좋아하는 금동이 덕분에 게으르던
저도 매일 산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금동이와 같이 뛰는 날은 이름하여 금동런!
하루에 2km는 꾸준히 뛰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같이 뛰자 금동아!

가족이 된 계기로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지요?

금동이와 저는 2018년 여름 처음 만났습니다. 부모님의 지인께서 분양을 받아 잠시 키우시다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동물을 무척 좋아했던 저는 여러 경로로 분양을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금동이는 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신기한 건 금동이와 제 생일이 같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운명인가 싶었습니다.

같이 지내면서 특별한 개성이나 재미있는 행동은?

금동이는 똑똑하고 감정 표현도 풍부한 강아지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바보 같은 모습도 보여줍니다. 제가 장난감을 던지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던지지 않으면, 던진 방향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내 저를 쳐다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금또속~” 하고 놀리며 웃곤 합니다. 금동이는 집 안에서 제가 다치지는 않는지, 뭘 하는지 늘 졸졸 따라다니며 보다가드처럼 지켜봅니다. 하지만 먹이를 줄 땐 혹시 먹을 것을 떨구진 않을까 눈치를 살피다가 틈을 타 쩍썩 훔쳐먹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졸졸 따라다니는 이유가 정말 저를 걱정해서인지, 먹을 걸 노려서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반려 생활을 함께 하면서 금동이라는 존재는?

금동이는 제게 가족, 그 자체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어떤 일로 힘들어 풀이 죽어 있거나 다운될 때 어떻게 알았는지 다가와 얼굴을 마구 핥아줍니다. 제 기분이 좋으면 금동이도 편안해 보이고, 제가 우울하면 함께 조용해집니다. 감정도 서로 닮아가는 건지, 때로는 사람보다 더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금동아, 누나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 나에게 와줘서 고맙고,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만 내 옆에 있어줘^^!

독자 여러분의 반려동물 스토리와 사진을 공유해 주세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소소하고 소중한 순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반려동물을 작가 유화 그림 액자로 담아 드립니다.

임직원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 sinew@isu.co.kr

음악은 귀로 하는 영혼의 호흡 인생음악 공유해요!



어떤 음악은 내 일기장 같은,
딱 지금 내 맘 같은 그런 곡이 있습니다.
허공에 보낸 하소연에 돌아온
시크한 답장 같은 가사.
그 한 대목을 만나는 순간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위로받거나 응원을 얻거나
다 관찰아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는 음악을 공유합니다.

그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을 담담하게 인정하는 가사

양두열 선임 | 이수스페셜티케미컬 공무파트



요즘은 출퇴근길이나 퇴근 후 혼자 있는 시간에 음악을 자주 듣습니다. 특히 가사가 과하지 않고 분위기로 감정을 전하는 노래들을 자주 찾게 됩니다. 음악을 통해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를 조금 다독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좋은 노래 한 곡이 하루의 분위기를 바꿔준다는 걸 요즘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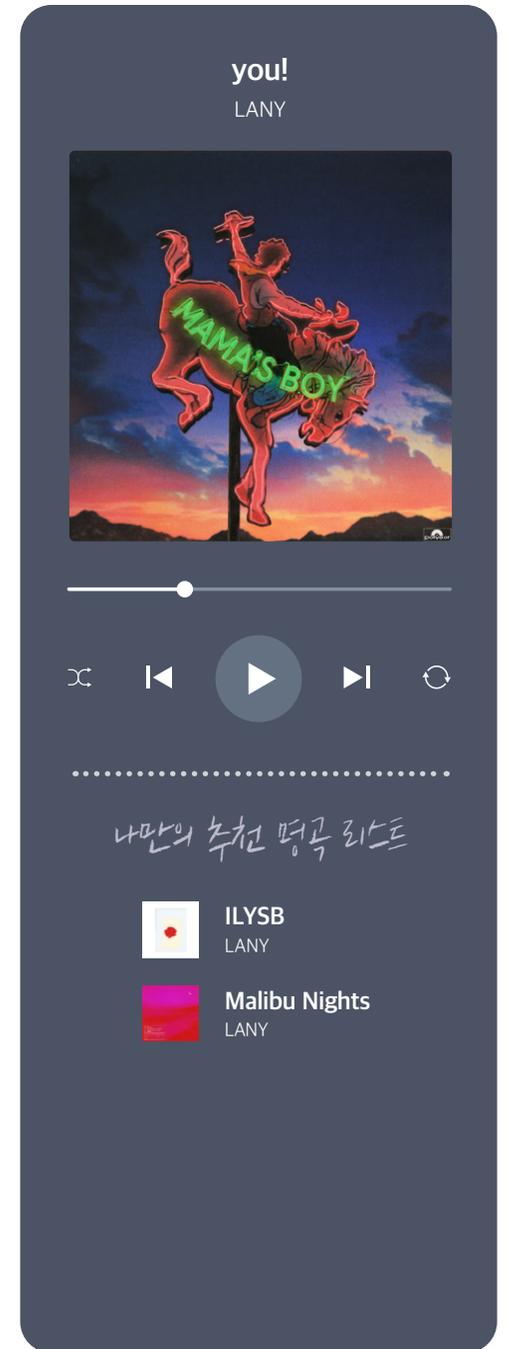
LANY - you!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특별한 설명 없이도 감정이 바로 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며 혼자 생각에 잠길 때 배경처럼 흐르던 음악이었는데, 가사를 곱씹을수록 그때의 감정과 상황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제 잔잔한 일상과 감정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곡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I'm nothing without you” 누군가가 없이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표현이 자칫 과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노래에선 의존이라기보다 그 존재감의 크기를 말한 것으로 와닿습니다.

comment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한편에선 특정한 ‘누군가가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이 있을’을 담담하게 인정하는 가사라 공감이 됐습니다.



비틀비틀 짹짹
한로로



나만의 추천 평곡 리스트



Baby It's Cold Outside
Michael Buble, Idina Menzel



Winter Wonderland
Michael Buble



Snowman
Sia

비틀거리다 깨지는 두려움은
언젠간 설렘으로 바뀔 거란 걸

김미강 선임 | 이수페타시스 구매팀



부서 배치받은 지 두 달째라 처음 해 보는 일을 맘껏 배우고, 실수도 엄청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니까 이전 진짜 사회인이 된 것 같아 설레는 마음뿐입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붕어빵과 어묵을 나눠 주셔서 인스타에 자랑했답니다. 또 먹고 싶어요~~~

한로로 - 비틀비틀 짹짹

처음에는 지인이 가수가 되었다고 해서 찾아 들어 봤는데, 멜로디가 아주 좋길래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작곡도, 노랫말도 직접 쓰는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던데 악보도 못 읽는 저로서 정말 부러운 재능이죠. 지인이라서 그런지 성공하길 바라는 맘이 큼니다. (하긴 그게 누구라도 그러겠죠?)

“비틀거리다 깨지는 두려움은
언젠간 설렘으로 바뀔 거란 걸 난 알아
이마 위 상처는 청춘의 징표
우리는 서로의 좋은 반창고”

comment

한창 취업을 준비하며 모든 게 불확실했던 시기에 들던 노래라, 가사에도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좋은 반창고~

아카펠라 특유의 하모니에
메신저 시대의 표현 방식 담아

박보경 선임 | 이수페타시스 품질보증2팀



고등학교 졸업 후 20살에 입사했는데 벌써 입사 4년 차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자 대학 진학을 준비 중입니다. 2026년부터 일과 학업을 병행할 거라 바쁘고 정신없을 거라는 걱정이지만, 회사와 함께 성장해 간다는 기쁨과 설렘이 더 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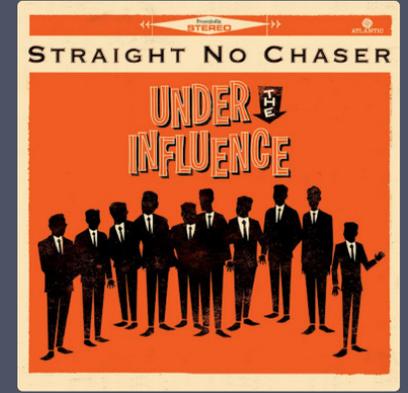
Straight No Chaser - Text Me Merry Christmas 아카펠라 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컬만으로 구성된 곡이라 신기한 마음과 겨울왕국의 안나의 성우를 맡은 배우가 불렀다는 소식에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SNS 이모지, 문자 등 메신저 시대의 사랑 표현 방식이 재밌게 녹아들어 더욱 좋아하게 됩니다.

Hi / Hey / How are you / OK / Miss you / Miss you too / Xmas sucks without you / I know LOL / Love you 후렴에서 대화하듯이 부르는 부분인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 들려서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게 됩니다.

comment

처음 시작하는 반주, 중간중간 울리는 종소리들을 다 사람 목소리로 불렀다니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음악은 긍정 기운을 줍니다

Text Me Merry Christmas
Straight No Chaser



나만의 추천 평곡 리스트



romeo n juliet
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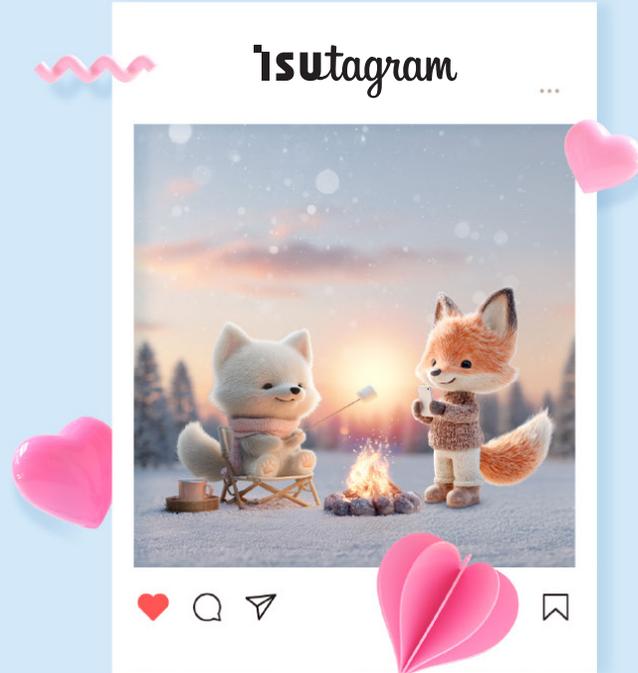


사랑은
릴러말즈, 미노이



밤(Night)
dori

한 개인의 **빛나는 순간**
함께 나누면 환해지는 **우리**



우리는 수많은 <우리> 사이의 존재입니다.
 잔잔하게 오는 몽클한 감동
 짜릿하게 휘감는 환호의 순간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어지는 사이...
 이수 가족 한사람 한사람
 혼자 간직하기 아까운 삶의 순간들을 넌지시 공개하는
 이수 가족 커뮤니케이션 공간입니다.

스토리가 담긴 이미지를 공유하며
 자유롭게 활발한 내적 보물과 소중한 순간을 함께 합니다.



권지용 과장 (이수건설 경영기획팀)



매번 어렵지만, 그래서 더 끌리는 달리기

달리기를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뛰러 나가기 전엔 “오늘은 안 뛰어도 될 이유”가 수없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막상 뛰기 시작하면 “여기까지만 할까?”라는 생각이 집요하게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러닝화를 신게 되는 건, 달리가 주는 보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 JTBC 서울마라톤에서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30km 이후에는 다리보다 의지가 더 달리는 순간이 이어졌지만, 한 발씩 밀어낸 끝에 결승선을 통과했고, 그때의 후련함과 뿌듯함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달리의 매력은 이처럼 항상 어렵지만, 그 끝에서 더 단단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면 가볍게 러닝을 시작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호흡이 가빠지는 순간을 지나 다시 리듬을 찾고, 몸이 한계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또렷해집니다. 꾸준함이 쌓이면 어느 순간, 더 강해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러닝 #운동하는직장인 #꾸준함 #일상의활력



곽은지 대리(이수앱지스 연구지원파트)



방린이를 넘어 방탈출 고수가 될 때까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우연히 시작한 방탈출이 이제는 제 인생 취미가 되었습니다. 입사 첫날 사내 동호회 목록에서 방탈출 동호회를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당시엔 동호회원 모두 동백사무소에서 근무하여 저는 매달 판교에서 수원으로 방탈출하러 가고, 그렇게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ㅋㅋ

저희 동호회는 매월 한번 방에 갇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창립기념일엔 원정까지 떠납니다. 최근에는 키이스케이프에서 만든 테마가 에버랜드에 새로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연차까지 내고 다녀왔습니다.

왜 돈 내고 갇히냐고 하지만 눈뜨자마자 테마 세계가 펼쳐지는 순간 설렘은 말도 못 합니다. 일상 속 탈출이 필요하시다면, 방 안으로 들어오세요!

👍 추천 테마

- 두껍아 두껍아 헌집줄게 새집다오(토끼굴) • 존재할 자격(단편선)
- 꼬레아 우라(코드케이)

참고로 이수앱지스 방탈출 동호회 이름은 이수케이프입니다!

어찌나 이름을 잘 지었는지 찰떡이죠?

#방탈출 #방린이 #방에 갇혀도 행복 #이수케이프 #SUcape=ISU+escape



하흥준 선임(이수시스템 ERP팀)



입사 후 첫 1년을 돌아보며

어느덧 2025년 1월에 입사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생활이 어떻게 될지 걱정도 많았고,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고민도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걱정이 무색할 만큼, 회사와 팀원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많은 도움 덕분에 즐겁고 감사한 1년을 보냈습니다. 함께 참여했던 여러 프로젝트들도 저에게는 큰 자산으로 남아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인적으로도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 한동안 멀어져 있던 한국 프로야구를 다시 챙겨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퇴근 후 집에서 경기 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맛도 있고, 가끔은 직접 경기장을 찾아 관중들의 열기 속에서 응원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특히 올해 직관을 6번 갔는데, 놀랍게도 6경기 모두 이겼죠. 이렇게 회사에서도, 일상에서도 새로운 즐거움들이 하나 둘 생기자 보니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2026년 힘차게 열어 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입사1년 #자산 #성장 #직관응원 #6경기승

독자 여러분의 사진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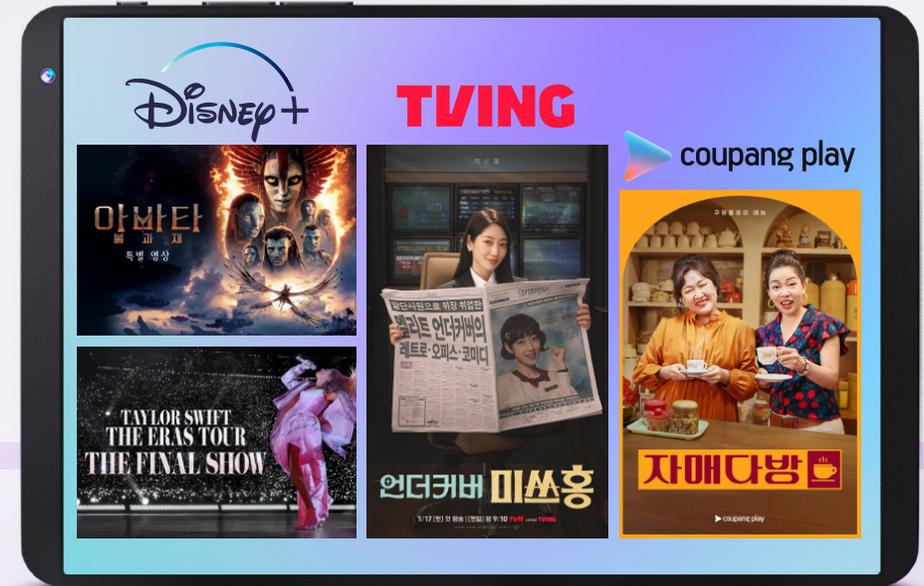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곁엔 놓치기 아까운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속에 담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사보에 실리는 행운과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 sinew@isu.co.kr

지금 이 순간, OT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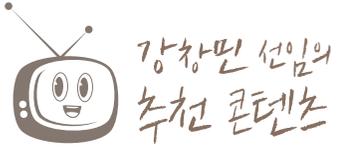
(Over-the-top)



취향 저격 콘텐츠 내 안에 세계를 들여놓는 일



OTT의 세계는
 단순한 미디어 소비를 넘어서는 경험입니다.
 일상의 공백을 채워주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넓고 다채로운 문화의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잘 만난 콘텐츠는 완벽하게 일의 에너지로 재충전 될 것입니다.
 눈과 맘을 사로잡는 OTT, 이수 직원들의 취향을 저격한 콘텐츠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강창민 선님의
추천 콘텐츠



강창민 선임
(이수페타시스 구매팀)

저는 구매팀 MRO(서브원) 및 장비, 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입사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퇴근하면 매일 유튜브, 넷플릭스만 보다 최근 다른 취미에 눈을 뒀습니다. 보드게임, 등산, 헬스를 시작, 나만의 정체성이 담긴 취미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마주칠 때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취미, 추천 부탁드립니다.



NETFLIX 브루클린 나인나인

2013~2021 | [15+] | 시트콤, TV 코미디, 수사물

<거침없이 하이킥> 배경을 경찰서로 옮긴 느낌

제가 미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시절, 영어 공부를 위해서였습니다. 보다 보면 어느새 공부는 뒷전이고 드라마만 집중해서 보긴 했습니다. 즐겁게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무거운 스토리 위주보다는 빅뱅 이론, 모던 패밀리, 프렌즈, 아이티 클라우드 등의 시트콤을 주로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보게 된 작품이<브루클린 나인나인>입니다. 별생각 없이 웃으며 보기 좋은 시트콤이라 추천하고 싶습니다. 스토리는 브루클린 99번 관할서 경찰들의 수사 해결? 코미디입니다. 분위기를 비유하자면, <거침없이 하이킥>의 배경이 경찰서로 옮겨진 느낌에 가깝습니다. 에피소드당 1~3화로 가볍게 보기 좋습니다. 하루의 긴장을 풀고 싶을 때 편하게 웃으며 볼 수 있는 OTT 작품을 찾고 계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추가 추천 콘텐츠



TVING <F1 더 무비> | coupang play <체인소 맨>

2025 | [12+] | 스포츠 | 2025 | [15+] | 액션



김신원 선님의
추천 콘텐츠



김신원 선임
(이수화학 인사노무팀)

2025년 4월 입사 후 많은 변화 속에서 좌충우돌하며 업무 적응 중이지만, 동료분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감사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에는 이수봉사단 활동으로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방문이 처음은 아니었는데, 몇 차례 방문할 때마다 그늘 없이 밝게 지내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대하면서 오히려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갈 때마다 매번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환승연애4

TVING 환승연애4

2025~2026 | [15+] | 짝짓기 예능, 연애 리얼리티

도파민 버튼을 가장 강하게 눌러주는 프로그램

평소에도 연애 프로그램으로 인생을 배울 정도로 즐겨 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만 나면 챙겨보는 걸 보면, 저 스스로도 왜 이렇게 열심히 보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 속 감정의 흐름을 바라보는 일이 흥미롭고, 공감과 몰입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환승연애 시리즈 중에서는 시즌2를 가장 좋아하지만 '환승연애4'는 특히 도파민을 폭발시키는 느낌입니다. 현실에선 절대 겪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 이렇게 재밌다니요! 출연자들의 선택과 감정 변화를 지켜보며 공감하기도 하고, 반전과 예측하기 어려운 전개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됩니다. 연애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번 시즌은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추가 추천 콘텐츠



TVING 싱어게인4

2025~ | [15+] | 예능

<싱어게인4>는 무명 가수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알릴 기회를 얻는 음악 리부팅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화려한 장치보다 노래 그 자체에 집중하게 만드는 무대라, 보는 내내 감정이 꼭 차오릅니다. 특히 이번 시즌은 스타일이 다양한 참가자들이 등장해 장르별로 즐기는 맛이 있고, 한 소절만 들어도 몰입감 극대화!! 마음을 차분하게 눌러주는 음악이 필요할 때마다 <싱어게인4>를 찾아보게 됩니다. 참가자들의 노래가 하루의 긴장을 싹 풀어주는 느낌! 유튜브 짧은 클립이라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QUIZ

나도 혹시 천재일까? 뇌섹 이수인 소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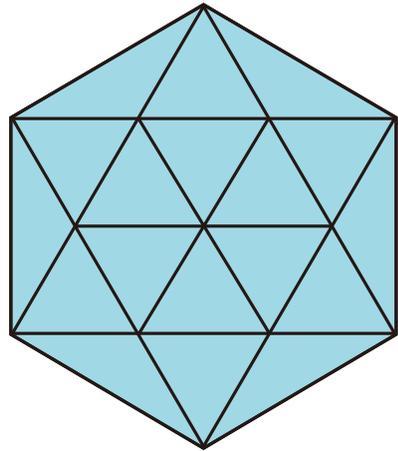


이 두뇌게임은 틀에 박히지 않은 사고를 요구합니다.
숫자는 두 자리여야 합니다. 어떤 숫자를 넣어야 할까요?

12 3 45 6 78 90 1 23 ??



18개의 작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육각형입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삼각형은 총 몇 개일까요?



가을호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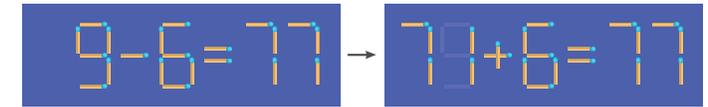


논리 퀴즈 정답

Quiz1

성냥 4개를 이동해 왼쪽 '9'를 '7'로,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면 올바른 수식이 완성됩니다. 등호(=)의 위치와 의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답: 71+6=77



Quiz2

마주 보는 바깥 셀과 안쪽 셀의 합이 같다는 규칙을 적용하면 4+2는 6이 됩니다.
바깥 셀에 1이 있으므로, 동일한 합을 만들기 위해 물음표에는 5가 들어갑니다.

정답: 5



추리 퀴즈 정답

Quiz3 열차 '수하물칸 금고' 절도 사건

수하물칸 문이 열릴 때 발생하는 금속음은 인접한 객실 B에서는 반드시 들려야 합니다.
존은 20시 직전 객실 B에서 금속음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객실 B에 있었다고 말한 크리스는 차임은 물론 금속음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해 규칙과 모순됩니다.

오직 한 사람만 거짓말을 한다는 조건을 적용하면, 유일하게 모순되는 진술을 한
크리스가 범인입니다.

정답: 크리스(사진가)



2025년
가을호 당첨자
(※가나다순)

- 남소정 책임 ((주)이수 Open Innovation팀)
- 노항택 기정 (이수스페셜티케미컬 QC파트)
- 유혜수 사원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영업1팀)
- 정규하 사원 (이수페타시스 설비자동화팀)
- 조익현 과장 (이수건설 마곡SH)

갤러리 '비밀 금고 비밀번호' 사건



현대 미술 갤러리 안쪽 방에는 소장품을 보관하는 작은 금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금고는

-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
- 서로 다른 숫자 세 개로 이루어진
- 세 자리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그날 밤, 금고가 열린 흔적이 발견되었고, 소장품 일부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직원 네 명은 각자 기억하고 있는 비밀번호의 단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조사는 금방 하나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네 사람 중 오직 한 사람만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 사람은 자신이 말한 문장 전체가 참이다.

이때, 각 직원의 말은 "그리고"로 이어진 하나의 문장으로 취급합니다.

즉, 그 사람이 말한 두 조건이 모두 맞아야 그 사람의 진술을 "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니퍼 (크레이터)

"비밀번호를 이루는 세 숫자는 모두 홀수이고, 세 숫자의 합은 20이었습니다."



윌리엄 (도슨트)

"비밀번호에는 짝수가 정확히 하나 들어 있었고, 세 숫자 중 가장 큰 숫자는 9였습니다."



로라 (학예보조)

"비밀번호는 내림차순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순)으로 적혀 있었고, 가운데 숫자가 7이었던 건 확실해요."



조나단 (관리팀)

"세 숫자는 서로 모두 달랐고, 그중 가장 작은 숫자는 4였어요. 그리고 세 숫자의 합은 20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아채셨나요? 이번에도 탐정이 밝혀내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세요!

1. 금고의 비밀번호는 어떤 세 자리 숫자였을까요?
2. 네 사람 중, 거짓말을 한 범인은 누구입니까?

이수인의 브레인 체조 <이수더지니어스>의 퀴즈를 풀어보세요.

Q1~3을 모두 맞힌 분 중 선착순 5분께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 sinew@isu.co.kr (퀴즈 응모 마감: 2월 15일)

머리만 쓰는 그대, 이젠 손도...
호모 하빌리스(Homo Habilis)

목공의 세계



새해에는 새해라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새롭게 다짐합니다.
업무 역량을 위한 분야에 대한 관심은 물론
자신의 삶을 리뉴얼하는 측면에서
여러 시도를 하게 됩니다.

컴퓨터 앞에서 머리만 써 왔다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삶을 위해
손을 사용하는
예술과 실용의 접점, 목공의 세계로!!

우리가 몰랐던 우리 자신,
손재주 있는 사람, 호모 하빌리스를
깨워 봅니다.
혹시 나, 전생에 목수였나?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기술을 예술이라 우기지 않는 겸손 목공 멘토가 전해주는 장인의 엑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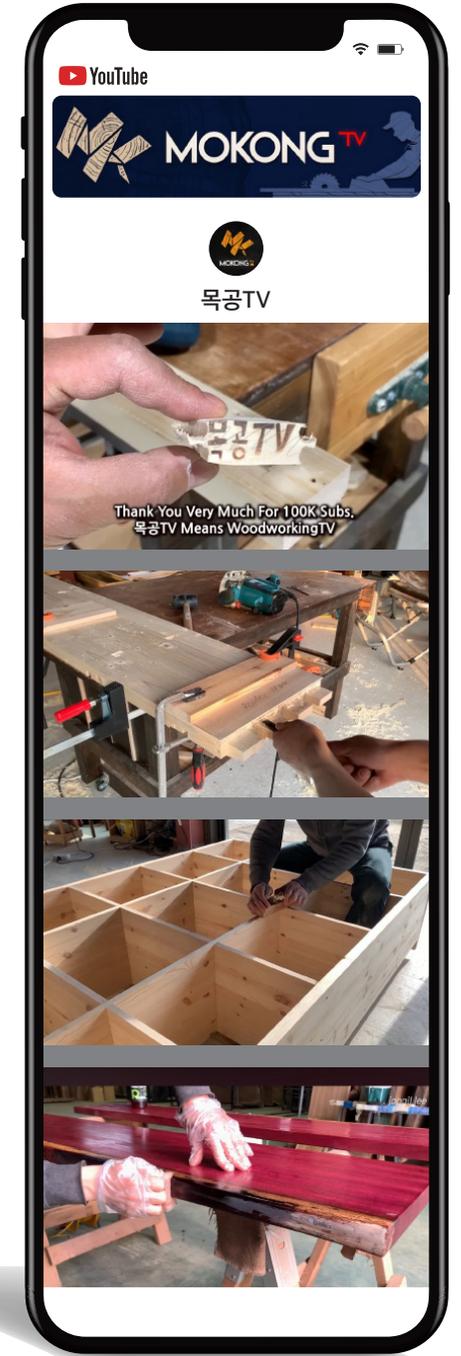
구독자 | 55.9만 명

지구촌 통틀어 직업을 통한 삶의 만족도 1위 -
손을 사용해서 뭔가를 창작하고 고치는 사람들이라네요.
그리고 보니 인간 예수의 부친 요셉 아저씨도 목수 -
였다는 건 상징하는 바가 있어 보입니다.
SI 시대라든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은 있기 마련.
손을 쓸 줄 아는 사람...
호모 하빌리스는 여전히 진화 중입니다.
이 채널 주인장은 목공 작업 전반에 묵묵히 자신이
가진 경험을 공유합니다. 생활환경 범주 내에서
있을법한 목공 관련 문제의 솔루션을 프로답게
해결하는 전 과정을 보여주죠. 손으로 하는 일,
목공의 세계에 지구촌 주민들이 보내는
공감과 응원에 숙연함이 있습니다.

- 재생목록 - 동영상 212개
- Fast & Satisfying Woodworking - 동영상 3개
- Tools Review - 동영상 10개
- Woodworking - 동영상 10개
- Woodworking with Slabs - 동영상 30개 등



» "눈을 땄수 없네요 - can't take my eyes off!"
웬 팝송 가사? 연애용 멘트나 가능할 말을 마구
투척한 구독자의 진정성 담긴 리액션이 과장은 아닌 듯
쿠웨이트 멕시코 러시아 발 댓글 재미도 보너스!!



바라만 보아도 맘이 정갈해지는 일상 예술화 - 고범석의 나무 예술



구독자 | 31.2만 명

이 채널에서 만나는 가구는 과학이면서 동시에 예술, 한국적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입니다.

갤러리를 옮겨 놓은 듯한 정갈한 거실을 꿈꾸는 이들이 도전할 만한 전통 목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심한 듯, 단순한 듯 나무가 가진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쓰임새 있는 가구를 오랫동안 손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삶이 디지털화되고 생산성과 효율성에 휘둘릴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것은 그것을 벗어난 것, 실용적이고 견고하며 아름답게 단순화된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재생목록 - 동영상 67개

Making furniture - 23개

Wood Joint Series - 8개

Wood Carving - 2개 / Skill - 7개

kick back table saw - 2개

QR 코드
 >> 채널 주인장은 패션디자인을 전공하고 의류 무역업에 종사하였으나, 공간디자인을 전공한 현재의 아내 김혜윤을 만나 목공을 시작, 2017년부터 자신의 이름을 딴 <고범석 가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공은 그것을 사용할 대상을 사랑하는 것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 꾸미기까지...



구독자 | 30만 명

단순한 DIY 프로젝트를 넘어 창의력, 장인 정신, 그리고 헌신의 결정체입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동시에 동기 부여가 됩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나무 머그잔을 만들거나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도 직접 제작해 서로 다른 목재의 대비와 따뜻한 질감을 살려 여러 가지 목공 기술을 조합하였습니다. 이 채널의 방문자나 구독자들에게도 다음 작업의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현실로 구현되는 모습을 보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교과서 삼아 집중하여 보게 됩니다.

재생목록 - 동영상 289개

B-star Craft 검은별 공작소 - 284개

Skill & Tip - 14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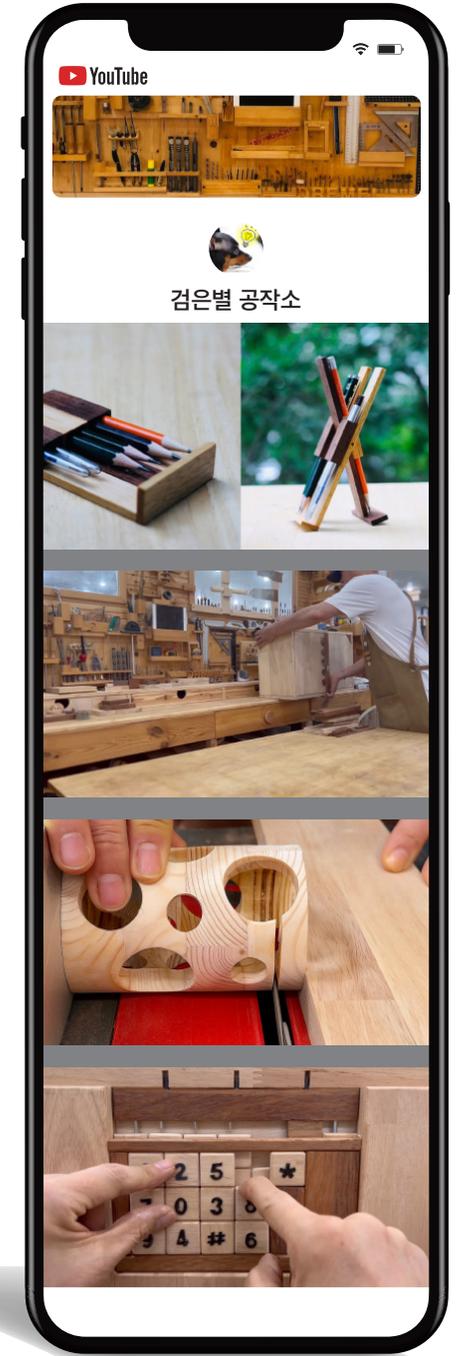
DIY for Animal - 57개

Lock Mechanism - 29개

Woodworking for Beginners - Tools, Skills

and Projects - 36개

QR 코드
 >> 주인장이 만드는 게 너무 쉬워 보여서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팔각상자, 아치형상자 등 소품 위주로 디테일을 제공하며 목공 채널 특유의 정적이 몰입감을 키워줍니다.



목공과 DIY를 즐기는 분들을 위해 충실한 손으로만 말해주는 천재



구독자 | 16.4만 명

우리 조상은 호모 파베르, 도구를 만드는 존재인 동시에 그 도구로 자신을 만들어 진화해 왔습니다.

목공 빨은 장비 빨 - 이라는 정의를 재확인하는 이 채널에서 마주치는 진화된 연장과 도구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자극을 받게 됩니다.

[시작도 전에 장비부터 지르는 성향 - 주의!!]

목공의 세계에서 실행에 수반되는 뛰어난 기술과 인내심뿐만 아니라, 도구나 나무를 집어 들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모든 작업에 사제처럼 엄숙하게 임하는 그의 손은 작업을 지켜보는 우리에게 말이나 눈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해 줍니다.

재생목록 - 동영상 71개

DIY - 동영상 54개

Smart Woodworking Life - 동영상 40개

Jig for Woodworking - 동영상 35개

Angle Grinder Project - 동영상 40개

Woodworking Project - 동영상 18개 등

» 스마트하면서도 관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을 사용해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얻게 된 진정한 총만함에서 온 따뜻함... 전 세계 많은 구독자들의 댓글에서도 그 미덕에 대한 감탄이 눈에 많이 띄니다.



아마추어 목수 - 시작은 바로 이렇게 ~ 나무꾼이 전하는 완초 탈출 금손 비결



구독자 | 15.5만 명

이 채널의 젊은 주인장은 자칭 21세기형 나무꾼!! 산에서 나무를 해오는 사람이 아니라 나무라는 물질을 포함한 일체의 기술과 재화를 공유합니다. 경쾌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톤업된 덕선의 주인장이 긍정 긍정적인 가이드로 제시하는 영상만으로도 목공의 세계에 뛰든 시도하고 싶게 만듭니다. 손재주 없는 완초(완전 초보)도, 금손이 아니어도 집안의 어떤 가구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드릴 하나로 시작하여 나만의 공간을 위한 셀프 가구, 싱크대 교체 등 전문가를 부르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마감하는 뿌듯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인테리어 목공 작업의 웅알이 단계 걸음마 단계도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재생목록 - 동영상 1.1천 개

대문 카테고리란 이게 다라서 의아??

세부 디테일은 너무 많아서 우와!!

공구 - 동영상 26개 / 철물 - 동영상 32개

나무 - 동영상 108개 / 목공 DIY - 동영상 317개 등

» 경제학 전공의 문과 출신 나무꾼 유튜버 김대환! 목공 입문자들을 위해 방구석 목공을 권해줍니다. 목공에 대한 애정과 나무 관련 자부심 뽐뽐 목소리와 얼굴이 따로 놀아 다시 놀라게 됩니다.



쫄득 탱글 구이로 야들 말캉 전골로 소곱창

영하의 강추위, 불금 퇴근 무렵이면
뒷덜미 와락 잡아채는 맛이 있습니다.

원시의 한때를 소환해 연기 자욱한 숯불 앞에서
날뛰는 후각세포를 어르고 달래며 육즙 꼬약, 불 맛 밴 곱창 한 점!

몽클몽클 입천장을 간질이며 허한 목젓으로 전진하는
배지근 탱탱 야들 쫄깃 그 생동하는 오감 복판에
탁, 털어 넣는 한 잔~~~카.

이런 순간을 미각세포에 스크랩하기 위해
일을 하고 저축도 하며 오늘을 살았노라.



동면 중인 오감에 시동~~ 곱창으로!!

야들과 쫄깃, 팽팽히 겨루며 상하 어금니 틈으로 폭발하듯 터져 입천장을 훑고 전진하는 육즙성 총체의 맛... 한 모금의 알코올은 다음 한 점 곱창을 부르고 다음과 다음 이 역동적으로 이어지며 열렬히 환호하는 목젓 언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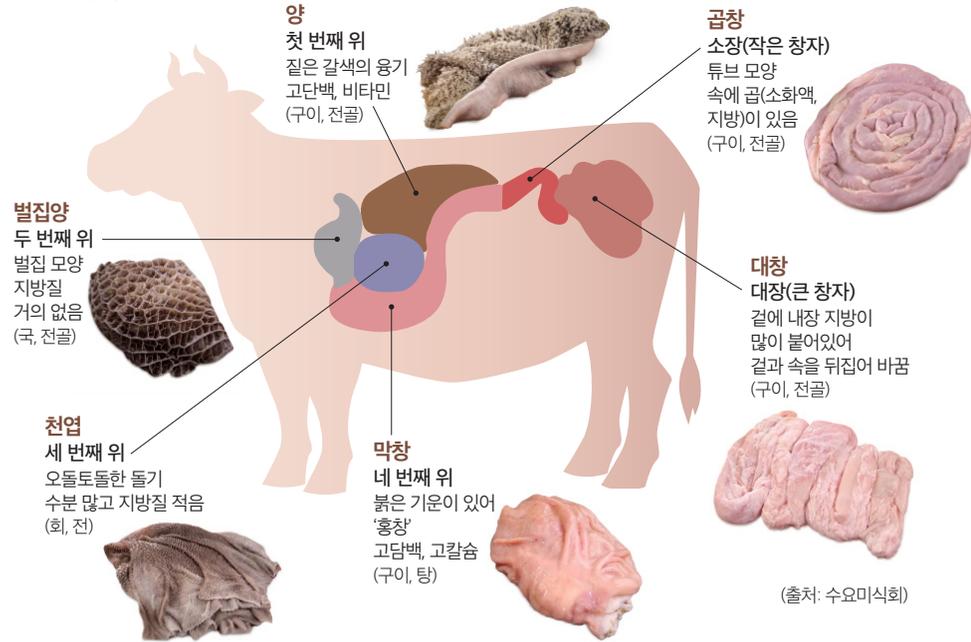
우리는 유난히 식감에 열광합니다. 입안에서 일어나는 몇 초간 퍼포먼스에 식품산업 지도가 바뀔 지경이니까요. 곱창의 미덕 또한 그 식감 겨냥 예술이죠. 유사한 대체제를 떠 올려도... No! 실로 독보적입니다.

한때 육체노동자들을 기운 나게 했던 곱창은 오늘날 정신노동의 MZ 세대에게 자제를 요구하는 극락의 미식입니다. 누른다는 건 늘 반작용을 부르는 법! 어느 하루쯤은 그 자제심 따들린 해방감으로 숯불 앞에 앉은 우리, 유쾌한 웃음과 자유로운 뒷담화에 잘박한 곱창 기름의 극단적 고소함을 스스로 허하며 한 달 치 힘을 넘실넘실 충전합니다.

하이볼도 위스키도 why not? 하지만 곱창과 함께라면 물을 탄 듯 술술 넘어가는 소주! 현재까진 진리일 터!



소의 내장 부위



아리송한 명칭과 실제, 곱창=[곱+대+양+막]

곱창을 뜻하는 영어로 chitterlings, chitlins, chitlings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나 돼지의 곱창을 아올러서 씁니다. 우리말에서 곱창/내장을 그때그때 같은 듯 다르게 쓰듯이, 영어권에서 Intestine(내장)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곱창의 어원은 사전적으로 '기름'이라는 뜻의 <곱>과 '창자'의 <창>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곱은 소장에만 있는 것으로 내부에 채워진 쫄득하고 질박한 질감의 지방과 소화액 뭉치입니다.

소의 내장 명칭은 부위별로 다릅니다. 곱창=소창, 대창=대장, 양=4개의 위 중 첫 번째, 벌집양=두 번째 위, 천엽=세 번째 위, 막창=맨 끝에 있는 위조 곱창 맛 근원은 바로 소장! 몽클몽클 탄력섬유의 식감과 짙은 곱의 고소함이 구이와 전골의 매력을 주도합니다. 신선한 곱창(소창)은 두툽한 곱의 풍부함 정도가 곱창의 등급이라 합니다. 또, 기름기가 적은 양과 짝을 맞춰 <양대창>을 이루는 대창이 있는데 이 부위는 표면에 덕지덕지 붙은 지방 뭉치가 속으로 가도록 스타킹처럼 뒤집는(내과 의사들이 기겁할!) 과정을 거칩니다. 막창 역시 위장이다 보니 단백질이 많아 담백 쫄깃합니다. 오늘날 통용되는 곱창요리란 위에 언급한 것들이 사용된 요리의 통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피키우스, 데 레 코퀴나리아>
고대 로마의 요리법을 집대성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양
요리책 아피키우스 필사본.
(출처: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동서고금 곱창 식용의 역사

육식 요리의 종착점에서 만나게 되는 곱창은 동서고금 두루 발전해 왔습니다. 원시 수렵시대 이후 불의 사용과 함께 비로소 그 질기고 야생적인 곱창이 매혹적인 식용 범주에 포함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유럽 - 고대 로마에서는 고기가 귀했기 때문에 버리는 부위 없이 모두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 도축 부산물인 곱창을 스투나 소시지 등으로 활용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요리책 <아피키우스(Apicius)>에 곱창요리가 등장하며 염소를 많이 키웠던 그리스에서도 곱창구이나 곱창 수프는 오랜 세월 이어진 유서 깊은 요리입니다.

중국 - 고대부터 식량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는 챔피언급이라 육류의 부산물도 요리로 응용하는 데 매우 능했습니다. 다양한 향신료와 조리 기술의 발달로 곱창을 볶음, 조림, 탕, 찜, 마라나 휘귀 같은 요리로 승화시켰습니다.

일본 - 전통적으로 불교권이라 육류를 금해 왔으나 일제 강점기 도축과정에서 버려진 곱창을 활용하는 조선인들에 의해 확산되었습니다. 정육 이외 내장요리 총칭인 <호루몬>이 호루모노(放る物, 버리는 것)에서 왔다고 합니다.

문헌에 언급된 우리나라 곱창

대표적 농경문화권이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소의 가치는 특별했습니다. 장정 몇을 능가하는 일꾼 뉘를 하다가 육류가 필요한 관혼상제에 도축을 하게 되면 최고의 대접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 가성비를 극대화해서 맛있게 먹는 방법이 진화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보아 예로부터 즐겨 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6세기 <산림경제> - 맛이 좋고 영양가도 높다. 곱창을 먹으면 기운이 나고 소화가 잘 됨.

17세기 <중보산림경제> - 곱창은 소의 소화기관으로 양념을 넣고 구워 먹으면 맛이 좋다. 술과 잘 어울림.

18세기 <동국세시기> - 겨울철에 먹으면 좋은 음식이다.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남. 일제 이후 우리나라 곱창요리는 부산에서 꽃피우게 됩니다. 부산항에 정박한 원양어선 선원들이 몇 달 동안 배에 갇혀 생선과 씨름하다 땅을 밟으면 연탄불 위에서 기름지게 자글대는 곱창 냄새는 원초적 허기를 흔들었을 터. 육류에 고팠던 가슴과 배를 달래려 격하게 영접했던 음식이 바로 곱창이었죠. 그렇게 소금기에 절은 목젓을 행구고 허해진 식도를 채워 다시 배에 오를 힘을 얻었으리라...



<산림경제>
조선 후기의 실학자 홍만선이
서술한 농업서이자 가정생활서.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아자아자 힘내!!! 곱창의 영양과 효능

중국의 문헌 <본초강목>에서 곱창은 소화가 잘 되며 무기질이 많고 철분, 비타민도 풍부해 피로 회복, 독성 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콜라겐 성분은 피부 미용에 좋아 남녀 노소가 거부감 없이 먹었던 음식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補中益氣 養肥胃, 保五腸 治風眩(원기를 보충하고 기운을 북돋아 주며 오장을 보하고 어지럼증을 다스린다)는 기록과 함께 몸이 붓는 증상을 낮게 해 산후조리에 좋다 합니다. 알코올 분해작용이 뛰어나며 위벽을 보호하고 소화를 도와 술안주로도 좋은 궁합이랍니다. 곱창의 자글대는 지방과 풍미로 콜레스테롤 염려증에 지레 등을 돌리지만 고지혈증 레드카드 상태만 아니라면 마음건강에는 이로울만한 음식입니다.

버려지던 곱창 화려한 부활 → 걸쭉속탱 별미

냉동기술이 좋지 않던 시절, 버려지거나 도축업자들이 마지못해 먹던 곱창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질 좋은 곱창의 가격은 상 등급 소고기 수준으로 비싸답니다. 많은 손질이 필요한데다 특수 냉장상태로 유통되므로 그 비용이 높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곱창집은 원재료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단골 납품업체와 독점 계약을 하거나 웃돈을 얹어 공급받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곱창 요리를 집에서 먹고 싶어 하는 수요도 증가해 진공포장으로 시판되는 제품도 많습니다.

쫄득 탱글에 환호, 아들 말강에 탄성 - 구이 VS 전골

| 곱창구이

숯불 석쇠나 특수 제작 불판 등에 곱창을 구워 먹는 요리로 곱창(소장) 뿐만 아니라 대창, 막창 등 다른 부위와 함께 곱창 모듬으로 냅니다. 지방 타는 연기나 조리시간을 배려해 대체로 주방에서 초벌구이를 해서 내며 부추, 버섯, 양파, 마늘, 감자 등 다양한 야채와 가래떡 등을 곁들여 구운 곱창을 양념장(기름장/간장소스 등)에 찍어 먹은 후, 마지막에 밥을 볶으면 위장 하나가 추가로 생성된 듯 식도와 함께 열리는 신세계는 별미 그 잡채!

| 곱창전골

곱창을 손질해 다양한 채소(버섯, 양파, 배추, 썩갓 등), 두부, 당면 등을 넣고 국물에 끓인 것입니다. 기본 육수에 곱창의 고소함이 우리나라 특별한 밀도를 품은 국물에 고추장과 마늘 다대기 등의 양념을 더하여 얼큰하고 깊은 맛을 냅니다. 곱창구이와는 또 다르게 아들한 식감과 입안에 퍼지는 진액은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극대치의 고소함을 누립니다. 테이블에서 끓여가며 따끈하게 즐기는 요리로, 술안주는 물론 식사 메뉴로도 인기 있습니다.



곱창구이



곱창전골

나라마다 식당마다 다른 맛, 해외 곱창요리

곱창은 동서양 두루 요리로 발전시켜 왔으며 소, 돼지뿐만 아니라 양(羊), 염소의 곱창도 소시지, 수프, 스투, 바비큐 등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람프레도또(Lampredotto)

샐러리, 당근, 양파, 적포도주를 넣고 끓인 곱창을 빵에 넣어 샌드위치로 즐기는 피렌체 인기 음식.



트리파 알라 로마나(Trippa alla Romana)

로마식 소 내장 스투로 소의 위(특히 두 번째 위 벌집양)를 토마토소스 기반에 졸여낸 전통 요리.

프랑스



트리프 아라 모드 캉(Tripe à la mode de Caen)

노르망디 지방 전통 요리로 소의 위를 사과, 양파, 당근 등과 함께 칼바도스를 넣어 푹 끓인 스투.



앙두예트(Andouillette)

돼지나 송아지 대창에 양파, 후추, 허브와 향신료 등을 넣고 채소 육수에 익혀 만든 프랑스 소시지.

그리스



코코레트시(Kokoretsi)

그리스와 튀르키예에서 국민 음식으로 사랑받는 부활절 대표 요리로 양이나 염소 창자를 꼬치에 감아 숯불에 천천히 돌려가며 회전 구이 형태로 조리.

스페인



칼로스(Callos)

곱창을 주재료로 병아리콩과 초리소 소시지 등을 넣어 끓인 걸쭉한 가정식 스투로 스페인에서 추운 겨울에 즐겨 먹는 든든한 음식.

포르투갈



트리파스 아 모다 두 포르투

(Tripas à Moda do Porto)

소의 내장과 콩 등을 넣고 끓인 스투로 포르투갈 포르투 지역의 역사와 자부심을 담고 있는 대표 요리.

아르헨티나



친출린(Chinchulines)

아사도(Asado)라고 불리는 남미식 전통 바비큐의 주요 전채 요리 중 하나. 소곱창을 숯불에 구워 소금과 레몬즙을 곁들여 먹는 요리.

멕시코



타코 데 트리파(Taco de tripa)

푹 익힌 뒤 팬에 구운 곱창을 토르티야에 싸고 양파와 고수를 올린 후, 라임즙을 뿌려 먹는 음식.



고르디타 데 트리파(Gordita de Tripa)

멕시코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중 하나로 두툽한 옥수수 빵 사이에 소곱창을 가득 채워 만든 요리.



메누도(Menudo)

소의 양과 내장을 주재료로 멕시코 고추를 사용한 얼큰한 국물에 끓여 큐민, 오레가노, 라임 등으로 풍미를 더한 해장 국물 요리.

(출처: mexicanissimo360.com / kiwilimon.com / rumbameats.com / africanbites.com / thespruceeats.com)

미국



후라이드 치틀린스(Fried Chitlins)

삶아낸 치틀린스에 튀김옷을 입혀 바삭하게 튀긴 요리로 고소한 겉면과 쫄깃한 속의 식감이 특징.



치틀린스(Chitlins)

돼지의 소장을 양파, 식초, 핫소스 등과 함께 오랜 시간 끓여 만든 곱창요리로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미국 남부의 전통을 상징하는 소울 푸드.

중국



마라 곱창볶음

마라 특유의 매콤하고 얼얼한 양념에 볶아낸 곱창 요리로 화자오와 고추의 강렬한 향과 풍미가 특징.



회귀

백탕 육수와 매콤한 홍탕 등 진한 밑국물을 끓이며 곱창을 비롯한 다양한 재료를 넣어 직접 익혀 먹는 중국식 전골 요리.

(출처: image.baidu.com / anafesta.jp / otoriyosetecho.jp)

일본



모츠나베(もつ鍋)

담백한 된장, 간장 베이스 국물에 부추, 두부 등을 넣어 끓인 후쿠오카 지방 전골식 소곱창 요리.



아부라카스(あぶらかす)

소곱창을 낮은 온도의 기름에 천천히 튀겨 만든 곱창 요리로 잘게 잘라 우동이나 덮밥 등의 고명으로 활용되며 고소하고 진한 풍미가 특징.



태국

꾸웨이띠아오 르아

선지와 내장을 국물에 함께 끓여 깊고 걸쭉한 풍미를 내고, 내장과 고기를 올려 즐기는 국수 요리.

필리핀



카레 카레(Kare Kare)

땅콩 소스를 기반으로 소고기와 곱창, 배추, 오クラ 등 다양한 채소를 넣어 끓인 필리핀의 전통 스투.



이사우(Isaw)

돼지나 닭 내장을 꼬치에 꿰어 식용 색소를 바른 뒤 숯불에 구워 먹는 필리핀의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

베트남



롱 능(Luong Nuong)

숯불에 노릇하게 구운 곱창을 소스에 찍어 먹는 곱창구이로 불향과 담백한 맛이 특징.



롱 싸오 즈어(Luong Xao Dua)

새콤달콤하게 절인 양배추 등의 채소와 함께 볶아 낸 곱창 요리.

기름 자글 고지방 외면에서 감성 충족 미식으로

과거엔 곱창이 환자의 회복식과 허약한 사람의 보신용이었죠.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어려운 육체 노동자들의 체력 보강에 고지방의 곱창이 독특히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고지방 자체가 현대인의 원수가 되어버린 오늘날, 곱창의 보양식 훈장은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거듭되는 법! 미각 기호가 다양화되면서 색·성·향·미·촉을 짜릿하게 강타하는 참신성을 찾는 이들에게 감성 충족 미식이라는 훈장을 새로 얻어 애호가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공행진 K 푸드, 동반 승차 곱창

BTS가 쏘아 올리고 케데헌(KPop Demon Hunters)이 슈퍼급 엔진을 추가하며 고공행진을 이어 가는 한식 세계화, 어느덧 자꾸 놀라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중심의 K 푸드 약진에 더하여 특별한 맛을 인정받은 한우 곱창이 K 푸드의 새로운 주자로 합세 중입니다. 곱창은 그 특유의 맛과 식감, 그리고 숯불·양념 조리 방식 덕분에 한류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해외 한식 레스토랑, 대형 마트, 한류 문화 행사 등 다양한 채널로 멀티 날개를 달고 있는데요. 기존의 곱창요리 문화가 자리 잡은 베트남, 대만, 일본 등 아시아권은 물론 북미와 중남미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우곱창모듬, 한우대창, 특양구이, 한우곱창전골 등 세분화된 패키지로 K 푸드의 불륜을 키우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곱창 맛집 추천 (이슈그룹 계열사 소재 도시 중심)



맛집부추곱창

사당역 인근, 오래되고 유명한 곱창 맛집. 국내산 한우 곱창으로 구성된 모듬곱창, 마늘곱창이 대표 메뉴. 특히 곱 속에 마늘이 쫄쫄 박혀 매력 있는 마늘곱창은 독특한 풍미로 인기.

📍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2길 37
☎ 02-583-4993



숯불막창

대나무숯으로 둘러싸인 야외석이 돋보이는 대구 곱창 명소. 이베리코 막창이라는 메뉴 포함, 참나무 숯불 초벌, 사이드 소고기뭇국에 레트로한 감성까지 고객 반응이 좋은 곳.

📍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42길 18
☎ 0507-1392-9297



태산소곱창

울산 달동 맛집. <숯뚜껑 곱창>이라는 마성의 키워드로 미식가들의 레이드에 포착된 전국구 맛집. 초벌 상태로 나와 편리. 곱창전골, 해물라면 등 사이드 메뉴도 인기.

📍 울산 남구 신정로18번길 9
☎ 0507-1388-0639

(출처: hot-thai-kitchen.com / thekitchn.com (Erik Bernstein) / travelfoodatlas.com / bachhoaxanh.com / hellobacsi.com)



고대영, <파피용(La Papillon)> 2025, 단채널비디오, 사운드, 컬러, 16분 16초

일상의 감각과 사고의 관습을 새롭게 사유하는 순간 VHS(Very High Signals)

예술과 일상의 '새로 보기' 제안, 스페이스 이수

스페이스 이수는 이수그룹의 문화 예술 후원을 통한 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기획된 열린 공간으로서 도심 속에서 누구나 동시대 미술과 문화를 가깝게 접할 기회를 마련합니다.

또한, 예술이 '예술을 위한 예술'에 머무르지 않고 삶 속으로 확장될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동시대 미술과 함께 디자인, 가구, 패션 등 라이프스타일까지 아우르는 문화 예술 콘텐츠를 소개, 우리의 삶과 예술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획자 전효경

전효경은 2011년 작가들과 함께 서울 목동에 전시 조직 <이브더넥>을 만든 후 현재까지 전시와 전시 관련 출판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가희, 조은비와 함께 「스스로 조직하기(Self-organised)」(미디어버스, 2016)를 번역하였으며, 기획전 <하루 한번>(2018), 김희천 개인전 <탱크>(2019), 이미래 개인전 <캐리어즈>(2020), 기획전 <호스트 모드드>(2021)를 기획, 리크리트 티라비닛, 유지원과 함께 2024 아트스펙트럼 <드림 스크린>을 기획했습니다. 아르코미술관, 아트선재센터, 리움미술관 등에서 큐레이터를 역임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VHS(Very High Signals)

2026. 01. 13 ~ 2026. 3. 20

참여 작가: 고대영, 최선아, 홍애린

기획자: 전효경

작품 제작 후원: 지비라이트 / 릿플렉서

2026년 1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90년대생 작가 고대영, 최선아, 홍애린 작가가 참여하는 <VHS(Very High Signals)>가 열립니다.

여러 미술관과 전시 공간에서 전시를 만들어온 전효경 기획자가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 세 작가들은 사회적 약속과 예측 가능성에 균열을 내는 작업을 통해 일상의 감각과 사고의 관습을 새롭게 사유하는 순간을 드러냅니다.

이번 전시는 스페이스 이수가 회사 로비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대체로 예측 가능한 일들이 발생하는 일상적인 장소인 로비에 고대영, 최선아, 홍애린 작가는 사회적 약속에 대한 예측과 기대에 서서히 균열을 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선보입니다.

전시에서 소개하는 작품 중 고대영의 영상 <파피용(La Papillon)>(2025)은 소리가 없는 영상으로 만들어졌지만, 1월 17일(토)에 진행되는 전시 연계 공연에서 영상 상영과 함께 라이브 공연을 진행합니다. 이는 전통 무성 영화 상영 형식을 차용한 것이며 이후 전시 기간 중 공연에서 녹음된 소리를 영상에 입혀 재생할 예정입니다.

리얼리티의 오독 형식으로 삶의 아름다움을 제시

고대영(b.1992) - 서울에서 활동하는 영상/설치 기반의 예술가입니다. 그는 리얼리티의 유한함, 제약, 장애 등을 오해, 오독하는 형식으로 삶의 아름다움을 제시합니다. 또한, 15년부터 20년까지 유기농 맥주라는 이름의 사이키델릭 밴드의 베이시스트로, 2020년 임창근-조아솅의 전시<GAZE>의 기획자로 데뷔 후 6회의 기획자로, 현재 서울 보문동의 예술공간 '수치의 공동 운영자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대영, <파피용(La Papillon)> 2025, 단채널비디오, 사운드, 컬러, 16분 16초



최선아, <Cypress(싸이프레스)> 2022, 편백나무에 오일바, 7.6x40x3.8cm

조각의 가변성에 대응, 예술 작동 범위 확장

최선아(b.1998) - 물질의 형태를 인정하고, 그 안에 있는 개별적인 특성을 이용해 조각의 형식을 탐구합니다. 그는 조각의 가변성에 신속히 대응하여 조각의 작동 범위를 넓히는 확장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홍애린, <Brat(브랫)> 2025, 13인치 모니터, 2채널, 3D 애니메이션 비디오, 4K, 스테레오 사운드, 프린세스 메이커 2 (manoano 제작) 배경 리마스터 버전, 설치 전경

아름다움, 옥시덴탈리즘 등을 통한 욕망의 심리 현상 탐구

홍애린(b.1991) - 서울과 프랑크푸르트를 오가며 활동하는 조각, 설치, 비디오, 퍼포먼스 기반의 예술가입니다. 그녀의 작업은 아름다움, 규율, 옥시덴탈리즘 등 욕망의 드라마와 관련된 심리적 현상을 탐구합니다. 규범과 이상이 작동하는 환경 속에서 개인과 사회가 서로를 조율하는 방식을 살피며, 이를 위해 종종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과 협업하는 구조로 작업을 전개합니다.

눈코입을 사로잡는 간식 서프라이즈



일하다가 당이 뚝 떨어지는 순간,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정답은 바로! 한 템포 쉬며 일할 맛 나게 에너지를 채워주는
이수 간식 창고의 깜짝 간식 선물이죠!

그럼, 다음 서프라이즈 간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두구 두구 두구... 바로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팀입니다!

<우리 팀이 간식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재치 있게
샤라웃(shout out) 해주세요.
푸짐하고 맛있는 간식 선물이 여러분의 자리로 배달됩니다 :D

이수그룹 전 계열사 부서 및 팀의 간식 신청 사연을 기다립니다. (접수기간: 2월 10일까지, 발표: 2월 중순)
우리 팀 자량과 함께 '간식이 필요한 이유와 치킨, 피자, 커피 음료 등 원하는 메뉴'를 사연에 담아 신청해 주세요.
당선된 사연 및 사진, 간식 후기가 실릴 예정입니다. 보내실 곳 | 이메일 : sinew@isu.co.kr

2025년 가을호
당선 후기를 소개합니다

우리 팀에게 쏘세요!!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영업2팀
김민정**

바쁜 연말 업무 내려놓고 다 같이 웃는 간식시간

저희 팀은 올해 팀 변동이 잦아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온 한 해였습니다.
서로를 챙길 맘의 여유가 부족했던 만큼, 잠시라도 편안히 웃고 싶 수 있는 시간
을 선물하고 싶어 간식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도 사연이 당첨되어 분식부터 피자, 치킨까지 푸짐한 간식을 함께 즐기며
연말의 따뜻한 분위기를 나눌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웃음과 이야기꽃이 피었습
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 이 시간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팀원들이 "정말 잘 먹었다"고 이야기해 주는 모습을 보며, 제가 작은 행복을 선물
한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 따뜻한 기운을 품고 내년에는 더 탄탄한 팀워크로 힘차게 달려가 보려고 합니
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팀 모두 더 즐겁고, 더 맛있고, 더
따뜻한 순간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



우리 팀에게 쏘세요!!



**이수페타시스
영업1팀
황시내**



페타시스의 이봉주, 마라톤 1등 기념으로 다 함께 단백질 보충

지난 10월, 1,100명이 달린 10km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주인공이 저희 팀에 있습니다! 바로 PRC(페타시스 러닝 크루)의 든든한 에이스인데요 😊
 평소 몸 관리를 위해 점심에도 닭가슴살만 고집하던 그를 위해, 이번 1등을 기념하여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역시 마라토너의 길은 쉽지 않네요.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라고 했더니, 오늘도 변함없이 또 '닭'이 들어간 맘스터치 버거를 주문합니다. 매일 먹던 닭가슴살 대신, 두툽한 치킨 패티를 베어 무는 주인공의 모습에 다 함께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1등 비결을 묻자 "매주 PRC 활동을 참신한 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저희는 감탄과 동시에 묘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희도 매주 같이 뛰었거든요 😊
 짧은 점심시간이었지만, 동료의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건강한 자극과 긍정의 힘을 듬뿍 충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단백질 보충을 통해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길 기대해 봅니다! 파이팅 :)



컬러링 테라피 갤러리

이수가족이 정성껏 채색해 주신 컬러링 응모작을 소개합니다.
작은 행복, 컬러링 테라피 코너에 앞으로도 많이 응모해 주세요.



김상현 기선
(이수페타시스 품질관리팀)



송재우 기선
(이수페타시스 공무팀)



유태하 기선
(이수페타시스 생산팀)



이대용 부장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정밀화학연구팀)



정보운 기선
(이수페타시스 생산팀)



채정국 차장
(이수애플지스 제품파트)

이수가족을 위한 아트 힐링 컬러링 테라피

컬러링 북은 선으로 그린 그림이나 도안을 모아 엮은 책으로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 원하는 색깔로 그림을 채워가노라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스려 정서적인 안정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보 <ISU>는 마음의 안정과 힐링을 선사할 컬러링 코너를 연재합니다. 컬러링을 마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모 방법

01



컬러링을 한다

02



인증샷을 찍는다

03



사진을 전송한다

보내실 곳 | 이메일 : sinew@isu.co.kr

2025년 가을호 당첨자 (※가나다순)

김상현 기선(이수페타시스 품질관리팀)

송재우 기선(이수페타시스 공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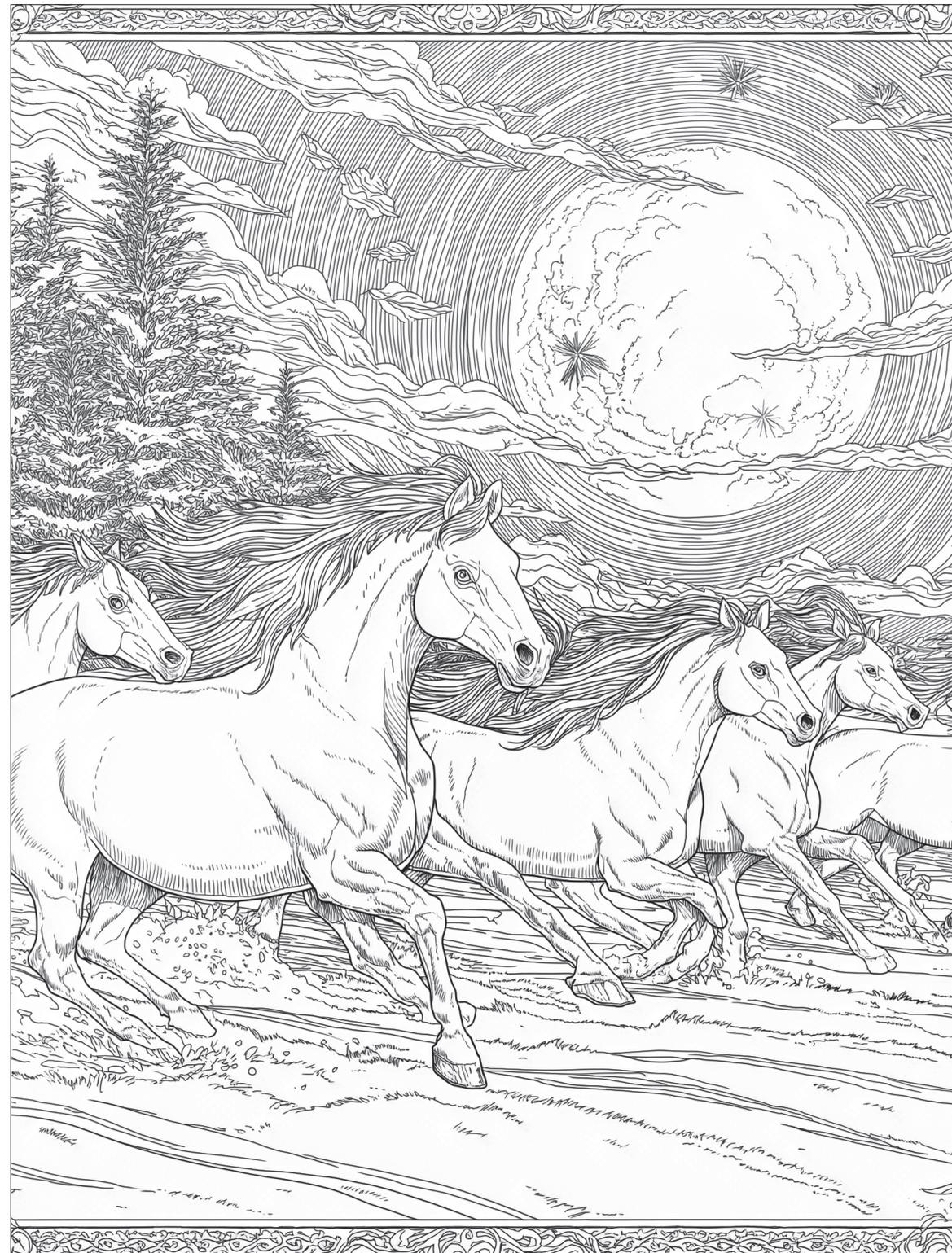
유태하 기선(이수페타시스 생산1팀)

이대용 부장(이수스페셜티케미컬 정밀화학연구팀)

정보은 기선(이수페타시스 생산1팀)

채정국 차장(이수앱지스 제품파트)

사보 ISU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솔한 생각과 마음이 담긴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자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봄호 원고 마감은 3월 12일입니다.



※ 상기 일러스트는 <2026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말들>로 시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GARMIN

WE'VE GOT SOMETHING FOR EVERYONE

당신을 위한
Garmin 스마트 워치



가민 Offline 브랜드샵

가민 브랜드샵 대전점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 엑스포아트홀

가민 브랜드샵 잠실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백화점 7층

가민 브랜드샵 부산 본점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 5층

가민 브랜드샵 소공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가민 브랜드샵 강남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8층

가민 브랜드샵 센텀시티점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4로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몰 1층

가민 브랜드샵 광교점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124 갤러리아광고 5층

가민 브랜드샵 의왕점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1039 롯데 타임빌라스 의왕점 1층

가민 브랜드샵 동탄점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157 롯데백화점 동탄점 5층



isugbs.co.kr